

高靈 樓亭의 文學的 解釋과 空間 機能

오 용 원*

|| 차례 ||

1. 머리말
2. 고령 누정의 건립과 시대적 흐름
3. 고령 누정의 공간적 기능
4.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지금까지 고령지역에 건립되었던 각양의 누정을 문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누정의 분포와 시대적 추이를 살펴보고, 누정의 공간적 기능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글이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전통시대에 고령 향촌사회에서 형성되었던 각종 문화와 사회적 인자들을 규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지역에는 이미 신라시대 때 碧松亭·孤雲亭과 같은 유서 깊은 누정이 건립되었다. 16세기에 이르면서 누정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건립 분위기는 근래에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고령지역에는 현존하는 누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헌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6세기 초에 이르러 일정한 경제적 여력과 학문적 교양을 갖춘 토착 재지사족들이 차츰 등장하면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와 18세기는 고령으로 입향했던 기존의 토착 사족들이 점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문중을 형성하여 집성촌을 이루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後學養成, 先祖宣揚, 民政管理 등의 목적으로 누정을 건립하게 되었다. 19·20세기에 이르면서 고령지역 전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HK교수

역에는 본격적으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先祖의 學行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된 누정이 대부분인데, 누정의 건립을 통하여 향촌 내에서 문중의 입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신분상승까지 꾀하거나 향촌 내에서 여론 조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누정은 일상생활의 주생활 공간이기보다는 별채 형태의 부가된 공간이다. 따라서 어떤 누정이건 간에 건립 초기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령지역에 산재해 있는 누정의 공간적 기능을 유형화해보면, 먼저 遊息과 藏修의 기능이 있다. 건립자나 경영자는 퇴계나 남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거나, 그 사숙문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환경이 비슷한 주위 문인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담론을 나누기도 하고 일정한 향촌사회의 신분질서 속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둘째, 講學과 修學의 기능이다. 조선시대에 향촌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향촌사회에서는 누정을 건립하여 私學의 강학소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관직에 있다가 致仕한 후에 낙향하여 누정을 지으면 원근에서 문도들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향촌의 재지사족으로서 은거하면서 문중의 자제들을 강학하기 위해 누정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누정이 차츰 건립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건립된 누정은 대부분 강학의 대상이 문중의 자제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한 누정에서도 건립 초기의 공간 기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건립 초기에는 강학의 목적으로 건립하였지만 중수, 이진, 퇴락의 전철에서 그 기능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재실 정도의 누정도 건립 초기에는 강학이나 장수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이 상당수에 이른다. 결국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오늘날에 이르러 상당히 퇴색되어 건립 초기의 문화 원형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樓亭, 在地士族, 建造物, 記文, 上樑文, 題詠詩, 遊息, 藏修, 講學, 和睦, 宣揚

1. 머리말

누정은 전통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변화, 역사적 정변, 사회적 정서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건립되거나 경영되어 왔다. 누정이 본격적으로 건립된 시기인 조선시대에, 고령지역은 향촌의 사회 패권을 주도했던 士族들이 타 지역에 비해 수적으로나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 상당히 단조로운 편이었다. 이들은 환로에 나아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부분 향촌 사회의 재지사족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부를 기반으로 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藏修한 사족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령지역의 누정은 이러한 기저에서 건립되어 경영되어 왔기 때문에 누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추이를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누정 건물의 원형은 전통적인 목조건축 공법으로 건립되었는데 16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건립되었던 건물 중 많은 수의 누정이 몇 차례의重修와 移建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본래의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누정을 전통시대에 勝景의 환경을 갖추고 건립된 단순한 建造物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정은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건립되었고, 이를 경영하는 과정에 역사·사회·문화적인 면으로 많은 의미를 안고 있다. 아울러 누정은 향촌 사회를 주도했던 사족들의 인적 구성과 학적 맥락의 구심점과도 일정한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정은 다양한 문화를 두루 포섭하고 있으므로 지역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령지역의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고령지역에 건립되었던 누정에 대한 논의는 향토지나 지리지에서 누정의 전체적인 분포와 현황을 파악하면서 간헐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고령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전체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거주했던 인구 역시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누정의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碧松亭과 같은 유서 깊은 누정이 있는가 하면 성씨별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역적 정서에 맞는 공간적 기능을 가진 누정이 함께 건립되어 경영되었다. 또한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 출입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기록문화유산을 남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령지역의 누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이며,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를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누정은 문학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정은 건립되면서부터 현존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기록물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물인 누정의 건립 과정과 공간적 기능을 적은 記文과 上樑文, 건립 후에 이곳에 출입한 이들이 남긴 각종 형식의 題詠詩와 詩文選集, 이곳에서 結契를 행하면서 작성된 각종 鄉案과 座目, 그리고 이곳에서 간행된 관련 文集·族譜 등이다. 기록화된 누정의 문화유산은 누정 문화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글감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령지역에 산재해 있는 누정의 기록문화유산을 통하여 고령지역의 누정 문화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령지역의 누정 건립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건립된 누정이 어떤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고령지역에 있는 누정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문화의 몇몇 국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 누정의 건립과 시대적 흐름

누정은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전통 건조물로서 외형적인 화려함만큼이나 그 주변에는 다양한 층위의 문화적 인자를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누정을 건립하는 데는 먼저 건립자, 건립 공간, 건립 재정, 경영자, 공간적 기능 등의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누정 건립은 시대에 따라 건립자나 경영의 주체, 그리고 공간적 기능이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는 면이 있다. 고려초기의 누정은 건립과 경영을 대부분 관청에서 주관하였던 반면, 중기에는 문인들이 개인 사찰을 소유하게 되면서 사찰에서 경영하는 누정이 많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누정이 본격적으로 건립되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찰에서 건립하거나 경영한 누정은 거의 사라진 반면, 官의 주도하에 官用으로 이용되거나 개인 또는 문중에서 사적으로 건립하여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정 건립의 시대적 흐름은 고려초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건립되어 건물 자체가 현존하는 누정의 上板詩文이나 각종 지리나 문집 등의 문헌에 남아있는 자료를 통하여 대체를 살펴볼 수 있다.¹⁾

영남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누정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건립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頽落이나 燒失로 인해 廢亭된 상당수의 누정도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령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고령지역은 대가야의 수도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고령을 土姓으로 하는 성씨가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지형학적으로는 낙동강과 인접한 지역으로 수려한 산수를 겸비하고 있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退溪學과 南冥學을 두루 아우르는 江岸學의 주요한 거점이기도 했다. 여건이 이렇다보니 환로에 나아가 고관대작을

1) 吳龍源, 「嶺南地方 樓亭文學 研究 (1)」, 『大東漢文學』 22輯, 大東漢文學會, 2006, 439~472面.

지냈거나 당대에 저명한 문인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사족으로서 향촌 사회의 유림을 향도했던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곳이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사족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누정을 건립하였고, 이를 경영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누정이 건립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적 구성이나 지역적 범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넓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령지역의 누정 건립의 시대적 흐름²⁾과 공간적 기능³⁾을 도표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건립시기	1500년 이전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연대미상	합 계
누정 수	2	5	4	2	19	119	15	166

〈누정의 건립시기〉

공간기능	講學	退休	先祖宣揚	齋室	私家	其他	합 계
누정 수	23	3	65	62	3	10	166

〈누정의 공간기능〉

-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정을 건립하는 데는 建立者, 財源, 建立場所, 空間的機能, 經營者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제반 조건을 갖춘 후에 건립된 누정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移建·重修·毀撤 등으로 인하여 차츰 본래의 모습이 퇴락함으로써 건립 초기의 제반 조건을 추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반 조건을 규명하는 데는 누정에 계관 되어 있는 記文·上樑文·實記·題詠詩·序 등과 地理誌·鄉土誌·詩選集 등과 같은 문헌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초기의 기문이나 상량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누정은 대부분 건조물이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누정은 건물을重修하거나 移建하면서 초기의 건립 조건들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移建記와 重修記를 대부분 다시 기록하기 때문에 초기의 모습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 도표로 작성한 고령지역 [누정의 건립시기]는 현재 각 누정에 掲板되어 있는 上板詩文과 地理誌·鄉土誌·詩選集 등의 자료를 통하여 數値化한 것이므로 加減의 誤謬가 어느 정도 있음을 밝힌다.
- 3) 누정의 누정은 건립 초기에 반드시 각 누정마다 공간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도표는 上板詩文과 地理誌·鄉土誌·詩選集 등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물론 한 누정이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필자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간적 기능 가운데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고령지역에는 이미 신라시대 때 碧松亭·孤雲亭과 같은 유서 깊은 누정이 건립되었다. 이후 16세기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건립 분위기는 근래에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고령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누정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특이한 저변 상황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고령지역은 가야산에서 흘러내리는 龍潭川을 배경으로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몇몇 누정이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 몇 차례 수해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바뀌고 강물이 고갈되면서 옛 자취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상당한 승경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곳에 건립된 누정은 우리나라 最古의 누정이라 할 수 있으며,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국적인 명소였기에 이 근처를 지나는 많은 騷人墨客들은 반드시 이곳에 들러 孤雲의 풍류를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감회를 시로 토로하였다.

둘째, 고령지역의 누정 건립은 몇몇 승경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령지역 전역에 누정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고령의 향촌 사회의 지배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갖춘 누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령은 大伽川, 小伽川, 錦川, 龍潭川(安林川) 등이 관류하고 낙동강에서 가장 긴 주변부를 갖고 있는 승경도 또한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이 그리 넓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인구 역시 많지 않았다. 넷째, 환로에 나아갔다가 물러나 퇴휴한 문인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누정은 건립과 경영의 주재자들이 정치적으로 불우하여 파직되거나 자의로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하게 됨으로써 수려한 경관을 찾아 누정을 지어 退休와 藏修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6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건립된 고령지역의 누정은 건립자나 경영자가 일정한 학문적 교양과 경제적 기반을 갖춘 토착 재지사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일찍이 환로에 나아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대부분 은거하면서 학문에 몰입하며 생을 보냈던 것이다.

그렇다면 누정에 掲板되어 있는 상판시문이나 각종 지리지, 문집 등의 자료를 통하여 고령지역 누정의 건립 경향이나 건립의 시대적 추이를 분석해보기로 하자. 16세기 이전, 신라시대 때 이미 고령지역에는 몇몇 누정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지리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현 서쪽 20리쯤에 용담 상류에 있다. 수목이 울창하고 시냇물이 휘감겨 도는데 그 아래에 挹仙臺와 孤雲亭이 있다. 최고운이 노닐던 곳이다. 『增古老相傳』에 이르기를, 창건은 漢 五鳳元년에 했고 중수할 때 고운이 상량문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운이 가야산에 들어가는 날 시에 말하기를, '해 저물녘 돌아가다가 송정 아래에 누우니, 어스름한 가야산이 푸르게 보이네.'라고 하였다. …중략…⁴⁾

碧松亭은 중국 漢나라 五鳳元年(57年)에 龍潭川 상류의 숲속에 이미 건립되었다. 훗날 중수 시에는 고운이 그 상량문을 지었는데, 벽송정 아래에 挹仙臺와 孤雲亭이 있었다. 읍전대는 큰 너럭바위이며, 고운정은 정자인 듯하다. 위의 기록을 통해 당시 이미 고령지역에 벽송정, 고운정 등과 같은 유서 깊은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벽송정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누정의 주인이 누구이며, 경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목적에서 건립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문헌에 남아 있는 자료와 수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여 현존하는 건조물이 전부이다. 지금도 벽송정에는 孤雲 崔致遠(857~?), 一蠹 鄭汝昌(1450~1504)⁵⁾과 寒暄堂 金宏弼(1454~1504)⁶⁾의 제영시가 계판되어 있다.

4) 『邑誌』, 「高靈縣」. “在縣西二十五里龍潭上流. 林木陰濃, 溪流縈迴. 其下有挹仙臺孤雲亭, 崔孤雲所遊處. 增古老相傳云, 荆健在漢五鳳元年, 而重修時, 孤雲作上樑文, 今無所徵焉. 孤雲入伽倻山日有詩, 暮年歸臥松亭下, 一抹伽倻望裏靑. …中略…”

5) 鄭汝昌, 碧松亭 掲板. “斜界山村歲月深, 蕭條索莫少知音. 從隣欲向高陽地, 詩病時時得細鍼.”

6) 金宏弼, 碧松亭 掲板. “川上亭開愁已洗, 雨中吟罷興猶存. 從今來往承提耳, 托庇期將到轉坤.”

斜界山村歲月深	비탈진 산촌은 오랜 세월 흘러서,
蕭條索莫少知音	적막함 그지없고 아는 이 없구려.
從隣欲向高陽地	이웃 찾으려 고령 고을 향했건만,
詩病時時得細鍼	시병 때문에 때때로 침만 맞았네.

공교롭게도 이곳에는 무오사화 때 희생되었던 두 문인의 제영시가 나란히 계관 되어 있는데, 예시는 그 가운데 한 수이다. 예시에서 일두는 벽송정을 찾아온 한 나그네의 여정과 이곳에서의 감회를 그대로 피력하고 있다. 벽송정의 긴 세월만큼이나 각지의 문인들이 이곳을 출입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을 터인데, 현재 계관되어 있는 작품은 세 수뿐이다. 하지만 문헌 자료를 통해 보면, 雙明齋 李仁老(1152~1220), 敬菴 吳汝櫟(1601~1635), 瓶窩 李衡祥(1653~1733), 菴園 吳宏默(?~?) 등 각지의 소인목객들이 이곳에 들러 감회를 토로한 작품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몇 차례의 수해로 인해 용담천의 물길이가 바뀌었고, 결국 1920년에 있었던 대홍수 때문에 현재 위치로 移建하였으며, 현재는 2년 전에 重修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벽송정이 건립된 이후, 이 공간은 단순히 목객들의 遊息의 공간으로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고령지역에 거주하는 사족들의 정신적인 매개체로서 儒林에서 結契한 공간이기도 하였다.⁷⁾ 지금도 고령 유림에서는 벽송정을 매개로 결계하여 향내 유림의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는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고령지역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건립된 현존하는 누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헌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6세기 초에 이르러 일정한 경제적 여력과 학문적 교양을 갖춘 토착 재지사족들이 등장하면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건립된 누정은 대부분 藏修와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된 대부분이다. 이들은 환로에 나아가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현

7) 高麗大學校 圖書館에 1890년에서 1911년까지 儒林에서 結契한 名單을 수록한 『碧松亭 儒契座目』이 소장되어 있다.

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로 은거하며 학문에 몰닉한 사족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의 누정 건립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들은 土姓으로서 집성촌을 이루어 당대의 명유들과 교유하며 향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누정은 교유나 후진양성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중의 大小事를 처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도 하였다.

이 시기에 건립된 누정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月潭 鄭師賢(1508~1555)의 月潭亭, 桃津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던 高靈 朴氏家에서 건립·경영한 竹淵 朴潤(1517~1572)의 竹淵亭, 鶴巖 朴廷潘(1550~1611)의 鶴巖亭 등이다. 이들은 지명이나 각자의 정서에 따라 당호를 지었고, 그 당호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 당시의 누정 가운데 월담정은 월담이 月器 마을[現 高靈 女綜高]에 養閑棲息, 즉 후학양성과 장수의 공간으로 건립하여 경영하였다. 결국 월담 사후에는 퇴락하여 후손들이 지산리로 이건하였고, 당호도 黃山齋로 개칭하여⁸⁾ 先祖宣揚의 공간으로 경영하였다. 현재 황산재에는 1899년에 李種杞(1837~1902)가 찬한 「黃山齋記」, 월담의 「原韻」을 비롯한 「附諸賢次韻一寒岡鄭先生·龜巖李先生·南冥先生題精舍詩」,⁹⁾ 鄭在寅의 「黃山齋小記」 등이 계관되어 있다.

「精舍原韻」

世事琴三尺	세상일은 석자 거문고에 있고,
生涯屋數椽	생애는 두어 칸 집이 전부라네.
誰知眞境樂	참된 경계의 즐거움 누가 알랴,
秋月照寒淵	가을달이 찬 연못 비추는구나.

8) 李種杞, 「黃山齋記」, 黃山齋 揭板.

9) 黃山齋 揭板. 「寒岡鄭先生」. “君子樂幽獨, 茅齋八九椽. 袖琴徽軫足, 冰月掛天淵.” / 「龜巖李先生」. “幽人居實地, 治屋竹爲椽. 道味琴成趣, 襟懷月在淵.” / 「南冥先生題精舍詩」. “綠羅池面雨生痕, 遠岵烟 近岵昏. 松老萬年低壓水, 樹徑三世倚侵門. 伽倻故國山連, 月器荒村亡且存. 小草斑斑春帶, 一年銷却一寸魂.”

예시는 월담정 주인이 지은 「原韻」 한 수로 安分하는 삶의 정서와 眞樂의 경지에서 삶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월담은 남명의 妹弟이자 門人이었다. 그는 남명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제현들과 교류하면서 환로에 나아가지 않고 독서와 수양으로 평생을 보냈다. 이러한 그의 인생편력이 인용한 예시에서 그대로 노정되어 있다. 그는 유유자적하는 자신의 은자적 삶을 거문고에 비유하였고, 서까래 몇 개를 엮어 놓은 보잘 것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한 처사의 삶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다. 가을날 차가운 연못에 떠있는 밝은 달을 바라보는 단순한 경물의 완상인 듯하지만, 이런 玩物을 眞境의 遊樂으로 단정하였다. 그가 피력한 ‘樂’은 단순한 유락의 경지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닐 것이다. 현상적인 상태를 뛰어넘는 자연세계의 본질과 융합하거나 일체화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쩌면 월담정은 이런 眞樂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한 매개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월담 역시 이런 입장에서 월담정을 경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騷人들이 이곳을 출입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각자의 감회를 토로한 많은 작품을 남겼을 것이다. 이 당시에 건립된 누정 가운데 현존하는 누정은 거의 없고,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누정은 자연물이 아닌 건조물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人災나 天災로 인해 퇴락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퇴락하여 이견할 경우에 건물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중수하기도 하지만, 건물의 규모를 증축하여 당호를 개칭하거나 공간적 기능까지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누정 역시 긴 세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17세기와 18세기는, 고령으로 입향했던 기존의 토착 사족들이 점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문중을 형성하여 집성촌을 이루는 시기였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향촌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더욱 표면화되었다. 당시의 촌락 구성과 집성촌의 형성은 누정의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茶山面의 全義 李氏家, 桃津里와 平地里의 高靈 朴氏家, 고령 현감

李衡仲, 雲水面의 星州 李氏家 등에서 후학 양성, 선조 선양 등의 목적으로 누정을 건립하게 되었다. 당시에 누정을 건립했던 문중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곳에 입향하여 향내의 유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으며,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형중이 고령 현감으로 재직시, 1745년에 松泉坊·九谷坊·津村坊에 거주하는 民力の 扶助로 開津〔開津浦〕에 건립한 濟三亭과 開湖亭이다. 당시 이곳은 영남의 가장 번성한 무역 포구로서 많은 漕倉이 있었다. 여기서 關稅와 民政을 살피기 위해 두 누정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19·20세기에 이르면서 고령지역 전역에는 본격적으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先祖의 學行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된 누정이 대부분인데, 이는 본격적인 문중의 형성과 성씨의 집성촌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령지역은 이미 조선시대에 고령을 본관으로 하는 신·박·이·유·백·김·정 등의 7개 토성이 있었다. 아울러 형성된 집성촌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8개 성씨가 입향하여 나름대로 각자의 문중을 형성하며 향촌 사회에서 문중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이들은 문중을 형성하면서 족보 간행, 先祖의 문집 간행, 花樹契의 조성, 旌閭碑 건립, 輶舘된 서원의 복원, 퇴락한 누정을 중수·이건하는 등 선조의 학덕을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위선 사업을 거듭하였다. 물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선조들의 학행을 드러내고, 다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일련의 爲先事業은 전통의 전수와 보존 차원에서 매우 유의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일면에는 선조들의 학덕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역사를 왜곡했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상당한 물질적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결계 활동, 누정 건립, 족보 간행, 문집 간행, 立石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선 사업을 왜 자의적으로 강행했을까? 이는 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서 조선조를 관류하고 있었던 봉

건적인 신분 질서가 차츰 변화함에 따라 향촌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문중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때이다. 특히 이 시기에 선조의 학행을 선양함으로써 선조의 유업을 후세에 전하고, 향촌사회의 재지사족으로서 대외에 문중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누정을 신축·이건·중수하는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중 의식의 고양으로 인한 누정의 건립 현상은 특히 1800년대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고령지역의 전역에 이러한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던 각 문중을 중심으로 대거 건립되게 되었다.

결국 향촌 사회에서 그들이 행했던 위선 사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누정의 건립은 위선 행위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기에 문중을 중심으로 많은 재원과 인력을 출연하였고, 심지어 향내에 있는 타 문중과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따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누정을 건립하게 되었다. 건립된 누정을 통하여 향촌 내에서 문중의 입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신분상승까지 꾀하거나 향촌 내에서 여론 조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고령지역의 어떤 마을을 가더라도 누정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그 개체수는 다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건립된 많은 누정을 만들어진 전통문화로서 어떻게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가는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몫이기도 하다.

3. 고령 누정의 공간적 기능

고령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누정의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넓지 않은 고령의 지역적 범위에 비해서는 누정의 개체가 많은 편이다. 누정은 문중이나 인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고령이 지역적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령'을 관향으로 하는 토성이 많고, 이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면서 많은 경제적 부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가진 누정을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누정은 일상생활의 주생활 공간이기보다는 별채 형태의 부가된 공간이다. 그래서 어떤 누정이건 간에 건립 초기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고령지역에 산재해 있는 누정의 공간적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遊息과 藏修의 기능

고령지역의 누정 가운데 16세기에 건립된 누정은 개인이 직접 건립하여 경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립자나 경영자가 환로에 나아갔다가 낙향했던 관인이었다기보다 대부분 학문적 역량과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재지사족으로서, 이미 향촌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한 지식층이었다. 그들은 향촌 사회의 재지사족으로서 퇴계나 남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거나, 그 사숙문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환경이 비슷한 주위 문인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담론을 나누기도 하고 일정한 향촌사회의 신분질서 속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족들은 탄탄한 배경을 바탕으로 누정을 건립하여 遊息과 藏修의 한 공간으로 경영하였으며, 이곳에 많은 騷人墨客들이 출입하였는데, 낙동강 가에 있는 桃津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고령 박씨가에서 건립한 누정이 대표적이다. 고령 박씨는 이미 고려조에 이곳에 입향하여 대대로 이어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폭넓은 교유를 하였고, 경제적 기반 역시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누정으로는 竹淵亭과 鶴巖亭, 그리고 浮來亭을 들 수 있다.

죽연정은 竹淵 朴潤(1517~1572)이 낙동강가에 건립한 누정이다.¹⁰⁾ 초기 건립 시기는 정확하게 상고할 수 없지만, 1880년에 문중에서 중수하였다. 『竹淵精舍重建記』를 보면 죽연정에 대한 간략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靈州의 본관에서 남쪽으로 20리쯤 桃川의 강가에 지난날 竹淵精舍가 있었다. 처사 박선생이 노닐던[燕處] 곳이며 이를 가지고 자호로 삼았다. …중략… 매일 이 곳에 거처하면서 세 아우와 함께 금 소리[鍾]로 노래하고 옥 소리[磬]로 화답하며 講明하던 곳이니, 모두 몸을 닦고 자신을 위하는 학문의 실지이다. 또한 曹南冥, 李黃江,¹¹⁾ 裊洛川 등 여러 현인들과 함께 時月로 서로 어울리며 갈고 다듬었다. …중략… 다만 정사가 무너진 것이 언제쯤인지 알 수 없지만, 백년 사이에 무너진 담과 주춧돌을 보면 쓸쓸함과 슬픔만 보인다. …중략…¹²⁾

恭山 宋浚弼(1869~1943)이 1880년 10월 하순에 지은¹³⁾ 『竹淵精舍重建記』이다. 죽연정의 공간적 기능과 이곳에 출입한 문인, 그리고 그 유서를 살펴볼 수 있다. 죽연정은 박윤이 낙동강가의 승경에 건립한 정자로서 퇴락을 거듭하다가 1880년에 다시 중수하였고, 당호를 죽연정사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경신년(1920년) 대홍수 때 기반이 허물어졌고, 병자년 홍수로 무너지게 되자 1939년에 현 위치로 이군하였다.

죽연은 장수와 수학을 목적으로 이곳에 직접 정자를 건립하여 경영하였다. 세 아우들과 함께 唱和하기도 하고 학문을 講究하여 밝히기도 했다. 죽연정을 건립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출입하였다. 특히 그의 스승이었

10) 『邑誌』, 「高靈縣」. “在縣南二十里, 孝子朴潤所築. 因址立祠于其上.”

11) 죽연정사에 개관되어 있는 중간기에는 ‘李黃岡’으로刻이 되어 있는데, 이는 ‘李黃江’의 오자인 듯하다.

12) 『竹淵精舍重建記』, 竹淵精舍 揭板. “直靈州治南二十里, 桃川之上, 舊有竹淵精舍. 故處士朴先生之所燕處, 而用以自號者也. …中略… 日處其中, 與弟三人, 金唱玉和, 所共講明, 皆修身爲己之實. 又與曹南冥李黃岡裊洛川諸賢, 時月追從, 磨礮切磋. …中略… 但精舍之廢, 未知在何時, 而百年之間, 只見頽垣敗礎, 滿目蕭涼矣. …中略…”

13) 記文의 末尾에 “上章執徐, 端陽月下澣, 治城宋浚弼謹記.”라고 기록되어 있다.

던 남명을 비롯하여 합천 초계 출신이며 고령 현감을 지냈던 黃江 李希顔(1504~1559), 洛川 裴紳(1520~1573), 月塢 尹奎(1500~1560), 省克堂 金弘微(1557~1604) 등이 출입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남명의 문인들이거나 사숙문인으로서 이곳에서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였고, 승경을 즐기며 많은 제영시를 남기기도 했다.

王謝風流數嶺南	왕사의 풍류 영남에 몇몇은 되겠지만,
多君諸子出於藍	여러 그대들은 출람의 경지구려.
獨憐幽竹亭爲號	홀로 그윽한 대 좋아해 정자 이름 지었으니,
其德元來不二三	외롭지 않은 덕 원래 두셋이 아니라네.

草堂高拂碧簷節	초당에 높이 흔들리는 푸른 대나무의 절개,
江燕差池雨打床	강에서 제비 어지럽게 날고 비가 침상을 치네.
秩秩斯干兄及弟	가지런한 물가에 형제들 모여 화목하고,
晨昏家事在溫涼 ¹⁴⁾	새벽부터 저녁까지 효도하는 일 뿐이구나.

예시는 죽연의 스승이었던 남명의 작품이며, 현재 죽연정사에 계관되어 있다. 창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남명은 몇 차례에 걸쳐 이곳을 출입하였고, 누정의 승경과 감회를 소재로 하여 제영시를 남겼다.¹⁵⁾ 남명은 죽연의 위인과 그의 가문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아울러 이 정자의 건립 배경과 공간적 기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예시에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예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때, 전반부에서는 중국 쑤나라 때 세상의 구속을 받지 않고 함께 자유롭게 어울려 놀았던 진나라 王羲之와 謝

14) 竹淵精舍 揭板.

15) 曹植, 『南冥集』, 『題竹淵亭在高靈』. “長江流恨政沈沈, 若可消憂盡可斟. 沙鷗定應霜下宿, 野烟無以認渠心.” / 『竹淵亭贈尹進士奎』. “文老才名第一流, 從前卜築更深幽. 性耽泉石堪棲隱, 身厭簪紳不宦遊. 魂夢欲尋迷半路, 書筒難遞隔三秋. 名場宿債今拋盡, 老境光陰亦不留.” / 『竹淵亭次文老韻』. “鄗水遙從百里流, 洛神還與女深幽. 參差亂羽銀魚羈, 高下飛絲野馬遊. 鶴髮蒼深多歲月, 荊花香發少春秋. 老來泉石廉於利, 未作蘇黃十日留.”

安의 풍류와 관련된 고사(王謝風流)를 인용하여 竹淵家を 王謝와 같은 두 가문의 풍류에 비견하였다. 아울러 주인의 덕망이 두터워 많은 문인들과 교유(德不孤)하며 이곳에 출입하여 풍류를 즐길 수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먼저 누정 주위의 대나무를 시적 소재로 삼았는데, 대나무의 곧은 절개를 그들의 정서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詩經』의 「斯干」 편을 인용하여 형제 간의 두터운 우애를 묘사하였고,¹⁶⁾ 마지막 구에서는 昏定晨省的 도를 실천하는 그들 형제들의 효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죽연정은 16세기에 고령지역에 건립된 초기의 누정이면서 遊息과 藏修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환로에 나아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낙동강가의 勝景에 누정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유하며 만년을 보냈다.

이곳에 건립된 누정 가운데 浮來亭 역시 이러한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鶴巖 朴廷潘(1550~1611)이 유식과 장수의 목적으로 건립한 누정이다. 1885년에 晩求 李種杞(1837~1902)가 지은 「浮來亭記」를 보면, “...중략... 도원의 뒤에 한 고개를 넘어 낙동강이 흐르는데, 정자가 있으니, ‘浮來亭’이라 한다. 강가에 있어 사방을 바라보면 흰히 트여 있다. ...중략... 학암 선생 박공은 한강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한 先達로서 임란 때 공이 있었지만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물러나, 桃源에 살면서 스스로 은거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 또한 이곳에 정자를 짓고 늙어서까지 여기에 머물며 거닐었다. ...중략...”¹⁷⁾라고 하였다. 학암은 한강의 문하에 출입한 많은 문인들 가운데 선배로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김면과 곽재우의 휘하에서 활동하

16) 『詩經』, 〈小雅〉「斯干」. “질펀히 흐르는 물가, 그윽한 남산이구나. 대나무가 떨기로 난 듯, 소나무가 무성한 듯. 형과 아우 다 모여 서로 잔 권하며 좋아하고, 서로 만마음 없으리로다. [秩秩斯干 幽幽南山 如竹苞矣 如松茂矣 兄及弟矣 式相好矣 無相猶矣]”

17) 李種杞, 「浮來亭記」, 門中所藏. “...中略... 源之後, 踰一嶺而洛江過之, 有亭曰浮來. 臨于江上, 四望遼豁. ...中略... 鶴巖先生朴公, 以岡門先達, 當龍蛇之亂, 有功不居, 退而居桃源以自晦. 既又築亭于此, 終老徜徉焉. ...中略...”

였다. 특히 그는 개산포 전투에서도 왜선을 사로잡는 등 많은 군공을 세워 임란 후에 遺逸로 禮賓寺主簿로 추천되었으나, 환로에 나아가지 않고 기존에 지어 놓았던 부래정에 은거하며 만년을 보냈다.

학암이 건립한 누정 가운데 부래정뿐만 아니라, 鶴巖亭 역시 이런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⁸⁾ 몇 년 전에 건물은 퇴락하여 무너졌고,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1599년에 지은 嶧陽 文景虎(1556~1619)는 『書鶴巖亭記後』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낙동강의 上下에 있는 亭榭와 臺觀을 살펴보면, 임진란 이래로 남아 있는 곳이 없다. 높이는 솟아 우뚝하고, 날개를 편 듯 좌우가 넓은 난간과 마루가 이리 저리 뒹군다. 호산의 맑은 정취에서 으뜸이며, 옛날 경치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학암정 뿐이다. 아아! 하늘이 시켜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인력에 의한 것인가? 정자가 있는 곳은 고양의 깊은 곳이니, 桃津의 빼어난 경치를 압도하고, 백 길이나 되는 바위 언덕을 깎은 듯하다. …중략…¹⁹⁾

역양은 내암의 문인으로서 학암의 가까운 벗이었기에 이곳에 잦은 출입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後序에서 낙동강 강가에 아름다운 도진의 경관, 학암정의 주변 경관과 그 위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학암정의 건립 시기는 정확하게 상고할 수 없다. 다만 역양이 『書鶴巖亭記後』를 지은 시기가 1599년이므로 이미 이전에 학암정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낙동강 강가는 자연 지리적으로 누정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임란 이전에 이미 몇몇 누정이 건립되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누정이 소실되었지만, 임란

18) 『嶧陽先生文集』卷3, 〈跋〉, 『書鶴巖亭記後己亥』. “在竹淵亭上, 一帶清江十里明沙, 鶴巖朴廷潘所築, 與諸賢講道之所.”

19) 『嶧陽先生文集』卷3, 〈跋〉, 『書鶴巖亭記後己亥』. “據洛江上下亭榭臺觀, 兵火年來無復有餘處, 巋然翼然, 欄檻宛轉, 領湖山之清趣, 全舊時之風烟者, 惟此鶴巖亭而已. 嗚呼, 天之使然耶, 抑人之力耶. 亭處高陽之奧區, 壓桃津之形勝, 斲百仞之巖阿. …中略…”

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회川 강가에 있으면서도 학암정만은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양이 『서학암정기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암은 천부적으로 강호에 遊樂하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평생 이곳에서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²⁰⁾

학암정을 건립한 이후에 학암은 남명이나 내암의 문하에서 수학한 많은 문인들, 그리고 향내 사족과 교유하였다. 특히 한강은 학암정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박씨가 소장되어 있는 『家傳規範』에 보면,

乙巳(1605년) 1월 23일. 한강 선생이 학암정에 오셔서 石物 일을 감조하시고, 2월 17일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셨다.²¹⁾

라는 기록이 있다. 한강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도진까지 와서 약 한 달 동안 학암정에 머물며 이곳에서 행해졌던 석물 공사를 손수 감독하고, 일이 끝난 후에 돌아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학암정에 대한 한강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寒岡鄭述(1543~1620)가 학암정에 와서 지은 『原韻』²²⁾와 이를 차운한 학암의 시가 있다. 학암은 한강과 학암정에서 보냈던 감회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次寒岡先生再登鶴巖亭有感韻』

文淵勝會知何日 문연에서 멋진 모임 언제쯤 가졌는지,

20) 『淸陽先生文集』 卷3. 〈跋〉, 『書鶴巖亭記後己亥』. “…中略… 凡所以供耳目悅心志者, 千萬其狀, 吾友朴君君信主人翁也. 風月襟期, 江湖性癖, 曾構斯亭, 擬爲棲息之所. …中略…”

21) 朴氏門中 所藏, 『家傳規範』. “乙巳正月二十三日. 寒岡先生, 來臨鶴巖亭, 監造石物, 二月十七日畢運還.”

22) 鄭述, 『鶴巖集』, 『原韻』. “다시 와서 지난날 왔던 때 생각나니, 소무가 흥노에 있었던 세월과 같구나. 당시엔 벗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젠 그나마 세 명만 살아 있구나. (重到還思會到日, 同於蘇武在胡年, 當時朋友知多少, 猶數三人性命全.)”

屈指如今二十年 손가락 꼽아 보니 하마 20년이 되었구나.
 淸江此夕重承誨 청강에서 오늘 밤 다시 가르침 받들었는데,
 經亂餘生幸獨全 난리 뒤 남은 목숨 다행히 홀로 남아 있네.

憶昔鶴巖簪盞日 옛날 학암에서 함께 모였던 날 생각하니,
 如今一十九回年 이제 열아홉 해나 지났구나.
 高儀更奉風塵後 높은 풍모를 다시 난리 뒤에 받들고,
 何幸餘生得苟全 그나마 다행하게 여생을 보전할 수 있네.

학암은 20년 전에 학암정에서 가졌던 좋은 모임에서 스승이었던 한강에게 받았던 가르침을 회상하고 있다. 임란으로 인한 황폐화로 당시 학암정에서 함께 酬酌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버리고 혼자 남아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난리가 끝나고 또다시 선생을 모시고 학암정에 올라 선생의 큰 가르침을 받들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렇듯 학암정은 장수의 목적으로 건립하여 당대에 많은 騷人들이 이곳을 출입하며 학암과 교류하며 많은 제영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학암 사후에도 묵객들이 이곳을 출입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²³⁾

23) 慕堂 孫處訥(1553~1634)의 「登鶴巖精舍奉贈主人」, “鬪雲架精舍, 奇絶久聞名. 巖竹叢叢直, 溪流曲曲淸. 鶴孤千古意, 松老四時情. 端合吾君信, 幽居究聖經.”이 있고, 특히 寒岡과 松菴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眉叟 許穆(1595~1682)의 스승이기도 했던 癡齋 許命辛(1569~1637)은 고령에 거주하면서 학암정에 많은 제영시를 남겼는데, 예시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與朴翰林上鶴巖 都生弘業佩酒來 或歌或詩 深夜團樂」, “夜深江閣月窺山, 酒未醒來徒依欄. 灘下寒聲霜雁過, 情談休處夢將闌. 江閣寒多酒力微, 促調清瑟願無歸. 燈將暗處重開話, 休道更深露濕衣.” 「鶴巖亭書齋 諸生慰別 內翰極歡而罷月已過午 次內翰韻」, “湖海孤蹤子, 瀛洲第一人. 雲泥矜異道, 寧學世情新.” 「遊在鶴巖 朴僉知先韻」, “月白風淸夜, 傳盃醉興饒. 高陽千載後, 淸致付吾曹.” 「歇馬住鶴亭, 入汝歸齋, 朝飯後, 與諸君先上坐武陵, 移時入紅流洞, 遇二少年, 酒新安人, 讀書於海印者也. 出飲秋露一盃, 上吹笛峰 諸君或臥或, 坐有濯纓者, 有漱石者, 余追思十年前, 來此有感, 得聲字韻」, “俯仰頻驚歲屢更, 十年來往一箚聲. 幸携耐友尋陳跡, 却對高僧話舊情. 四顧微茫心萬里, 重游彷彿夢三生. 臨高落日時傾耳, 雲際如聞子晉笙.”

2) 講學과 修學의 기능

조선시대에 향촌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지방에서는 향교나 서원에서 유학의 대의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주로 담당했지만, 향촌사회에서는 누정을 건립하여 사학의 강학소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관직에 있다가 致仕한 후에 낙향하여 누정을 지으면 원근에서 문도들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향촌의 재지사족으로서 은거하면서 문중의 자제들을 강학하기 위해 누정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령지역에 있는 누정 가운데서도 이런 공간적 기능을 가진 누정이 있다. 그러나 고령지역에는 환로에서 낙향한 문인들이 건립한 누정보다 사족들이나 문중에서 문중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건립한 누정이 대부분으로 특히 景雲齋를 주목할 만하다.

景雲齋는 靑泉 申維翰(1681~1752)이 환로에서 물러나 강학과 退休를 목적으로 건립한 누정이다. 청천의 문인이었던 芝村 朴履坤(1730~1783)이 찬한 『年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英宗 36년 경오. 선생 70세. 景雲齋에 살았다. 高花洞에 정사를 짓고, 정사의 편액을 '景雲'이라고 했다. 울 밖에 돌을 쌓아 산을 만들어 매화·국화·소나무·대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어 서식할 곳을 만들었다. 세 칸의 집을 지었는데, 좌측 방을 '好遯窩'라 하고, 책·거문고·벼루·차와 술 단지를 갖추어 놓고 은거의 즐거움을 누렸다. 우측 방을 '養蒙軒'이라 하고, 講課를 두어 그곳에서 후학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게 했다. 많은 선비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책 상자를 들고 줄지어 찾아왔다. 선생은 매일 관과 띠를 하고, 더욱더 부지런히 할 것을 권면하여 집안에 있을 때는 엄숙함이 마지와 齋廬와 같았다. …중략…²⁴⁾

24) 朴履坤, 『靑泉先生文集』 卷10, 『附錄』, [年譜]. “我英宗大王二十六年 庚午, 先生七十歲, 居景雲齋. 築精舍于高花洞, 扁其齋曰景雲. 又於檻外築石爲山, 植梅菊松竹, 引流鑿池, 以爲棲息之所. 爲堂三間, 左曰好遯窩, 蓄經書琴研茶壺酒鎗, 以寓隱居之樂. 右曰養蒙軒, 設講課, 俾後學肄業其中, 京鄉多士負笈者踵相接. 先生日必冠帶, 益加勸勉, 門庭之間, 儼然若齋廬焉. …中略…”

청천이 만년에 고령에 안착한 경위와 경운재의 공간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李瀾가 『靑泉集序』에서 청천의 문학적 재능이 崔岾(1539~1612)이나 車天輅(1556~1615)보다 뛰어나다²⁵⁾고 평했을 정도로 그의 재능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高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학문적 은축과 문학적 재능에 비해 관직 생활이 그리 화려하지 못했다. 그는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자신이 그토록 꿈꾸어 왔던 고령으로 낙향하여 자신의 거처를 ‘小伽倻’라 하고 이를 刻石하였는데, 이는 고운의 풍류를 그가 사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⁶⁾

청천은 密城(密陽)에서 태어나 34세(1714)에 고령 量田里로 이거하였고, 환로에 나아갔다가 1749년에 다시 고령으로 돌아왔다.²⁷⁾ 다음해에 경운재를 건립하여 경영하며 후학 양성과 저술 작업²⁸⁾으로 여생을 보내다가 경운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인위적으로 울타리 밖에 산을 만들기도 하였고, 그곳에 매화·국화·소나무·대나무 등 갖가지 의미 있는 나무를 심었으며 주위에는 연못을 만들어 만년의 보금자리를 꾸몄다. 만년에 이곳에 정착한 그의 특별한 애착은 다음 예시에 잘 나타나 있다.

25) 李瀾, 『靑泉先生文集』, 『靑泉集序』, “…中略… 惜乎, 使翁當穆陵盛際, 獲償於皇華唱酬, 卽簡易不專美於前, 而五山爲之下風, …中略…”

26) 崔重純, 『靑泉先生文集』 卷10, 『行狀』, “…中略… 遂解紱歸伽倻精舍, 扁其齋曰景雲. 又於檻外築石爲山, 植梅菊松竹, 引流池, 種蓮與魚苗, 刻石曰小伽倻. 蓋嘗夢崔文昌, 寓其景慕之意故也. …中略…”

27) 朴履坤, 『靑泉先生文集』 卷10, 『附錄』 [年譜], “我英宗大王二十五年 己巳, 先生六十九歲. 撰觀瀾李先生旋孝閣記. 六月, 罷歸靈川. 先是先生以年老世險, 無意於仕進, 累乞辭職, 而前在方伯嘗以弊邑歎民, 非良吏則不能, 終不許遞, 新伯以見忤餘人, 貶之中科, 先生解綬卽歸, 著筮遜錄. 著拱辰錄. 辭京華諸友書.”

28) 청천은 69세(1749년)에 고령으로 돌아와 『筮遜錄』·『拱辰錄』 등을 짓고, 70세(1750년)에 『易理粗解』·『文章袞鉞』·『詩書正宗』·『經學略說』·『讀書箴』, 『誠身箴』, 『枕屏銘』, 『枕泉錄』 등의 저술 작업을 하였다.

「題景雲齋」

小齋晴景好	작은 서재에 맑은 경치 너무 좋아서,
簷鳥有佳音	처마 끝에 새들 아름답게 지저귀네.
花動新移樹	새로 옮긴 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風鳴舊歇琴	묵혀 놓은 거문고 바람에 울리는구나.

踏青今日事	답청은 오늘의 일이기에,
垂白少年心	백발의 머리에도 마음은 소년이구나.
興發騎驢去	일어나는 흥취에 나귀 타고 가는데,
探春水北林	봄 찾아 강 북쪽 숲으로 간다네.

경운재를 낙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봄날인 듯하다. 청천은 이곳에서 소년과 같은 심상으로 踏靑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 일어나는 흥취에 어디론가 봄나들이를 떠난다. 그는 경운재에 두 칸의 방을 만들어 각각 好遯窩와 養蒙軒이라 칭하였는데, 만년에 귀향한 그의 탈속적 정서와 경운재의 공간적 기능을 그가 칭한 두 당호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養蒙軒에서 강학을 할 때, 그의 명성만큼이나 경향 각지에서 많은 문도들이 찾아왔다. 평소에도 항상 의관을 정재하여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았고, 찾아온 문도들에게 일일이 면학을 권면했다.

이렇듯 18세기에는 고령지역의 누정 건립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천이 건립한 경운재는 강학의 공간적 기능을 갖춘 누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누정이 차츰 건립되기 시작하는데, 이 때 건립된 누정은 대부분 강학의 대상이 문중의 자체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茶山面의 경주 김씨가에서 건립한 知知齋가 그 한 선례이다.

...중략... 낙동강이 동쪽을 가로지르고 儀鳳山이 둘러 있다. 마을이 깊고 조

용하며 민속이 순박하기에 종종 隱君子가 태어남이 있다. 그곳은 깊어서 시끄럽지 않아 죽을 때까지 후회함이 없었다. 訥窩 金龍亭이 뛰어난 사람이다. 공은 일찍이 여러 종형제들과 함께 우애가 두터웠다. 놀 적에는 방법을 같이 했고, 공부할 적에도 업을 같이 했다. 금전적인 것에 개의치 않고 계를 모아 강습의 밑천을 도왔다. 英孝王 [哲宗] 戊申(1848년)²⁹⁾에 마을 뒤쪽 한 구역에 집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거처하였다. …중략… 공이 돌아가신 후에 上皇 [高宗] 甲戌(1874년)에 그의 아우 養性齋 龍圭가 집이 너무 좁아서 여러 자제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음을 근심하여 집의 규모를 넓혀 다시 중수하였다. 그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그 편액을 '知知齋'라고 하였다. …중략…³⁰⁾

李道復(1862~1935)이 1919년 正月 下旬에 金龍圭의 아들 斗熙의 청탁에 의해 지은 『知知齋記』인데, 기문에서 이 정자의 건립 유래와 그 공간적 기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간에 몇 차례의 중수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도 다산면 벌지리에 지지재의 건물이 남아 있다. 訥窩 金龍亭은 종형제들과 공부하기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계를 만들고, 1848년에 이곳에 정자를 지어 '八龍'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그리고 그의 아우 養性齋 金龍圭가 여러 가제들이 공부하기에 공간이 협소함을 인식하고, 1874년에 이 건물을 증축하여 지지재라고 당호를 정했다. 이 정자는 강학을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이지만, 특정한 스승과 그 문도들이 수학한 강학 공간이라기보다는 문중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1878년에 斑山 安光默(1832~?)이 이곳에서 지은 한 수의 제영시³¹⁾가 현재 계관 되어 있다. 정산은 제영시에서

29) 현재 知知齋에 계관되어 있는 기문에는 '越英孝王戊申'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당시의 戊申年(1848년)은 英孝王[哲宗]年間이 아니라 憲宗年間의 오류인 듯하다.

30) 李道復, 『知知齋記』, 知知齋 揭板. "…中略… 洛水橫其東, 儀鳳鎮其西, 洞府幽闐, 民俗淳戔, 往往有隱君子胚胎. 其間深藏不市, 歿身而感悔焉. 訥窩金公龍亭其尤者也. 公嘗與群從兄弟友愛隆摯, 遊則共方, 學則同業, 捐金立契, 而助講習之資. 越英孝王戊申, 結構數椽于邨後一區, 入處其中. …中略… 公歿後, 上皇甲戌, 其弟養性齋龍圭, 患堂室之陝隘, 無以容羣子弟, 增其制, 而重彰之. 因其坊名而扁其楣曰知知齋. …中略…"

31) 安光默, 『寄題八龍書齋』, 知知齋 揭板. "史野彬彬耀大東, 自然物理任窮通. 冲襟恒印盈川月, 道氣留聽講樹風. 聖豈欺余浮海左, 士如求俊在隆中. 八龍樓畔滄洲踏路, 負賀諸賢

實工에 전념하는 諸賢들을 묘사하면서 지지재의 공간적 기능을 그대로 피력하였다.

3) 和睦과 宣揚의 기능

향촌사회의 재지사족들은 집성촌화를 통해 문중이 성립하는데, 문중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할 정신적 매개체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자신의 先祖를 대외에 宣揚하는 것이었다. 선조를 선양하기 위한 방법은 족보나 문집의 간행, 입석 사업, 누정 건립 등으로 이 가운데 누정의 건립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전통 시대의 누정 건립은 지금의 발달된 건축 공법으로 건립하는 것보다 재원적인 면에 있어서 物力과 努力의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結契하여 문중의 자발적인 출자를 통하여 누정을 건립하였고, 문중의 위세를 대외에 공고히 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자신의 문중이 여론을 주도하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고령지역에 있는 누정 가운데 문중의 화목과 선조의 선양을 목적으로 건립된 초기의 누정은 星山面에 있는 光山 李氏家에서 건립한 敬睦堂³²⁾이 있다. 敬睦堂 宗中에서 기록한 『敬睦堂重建事實記』를 보면, “敬睦堂은 容齋·六一軒·茅齋 등 三府君이 건립한 것이다. 첫 건립은 英祖 庚申(1740년)이었고, 正祖 丁亥에 이르러 불행하게도 화재로 무너졌다. 3년이 지난 己丑年에 다시 중건하니, 이제 또한 200여 년이 되었다. …중략…”³³⁾라고 하면서 경목당의 건립과 이후 중건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경목당은 1740년에 容齋 李弘器(1531~1582)·六一軒 李弘量(1531~1592)·茅齋 李弘宇

踏實工.”

32) 高靈郡 星山面 古吞里 所在.

33) 敬睦堂宗中, 『敬睦堂重建事實記』, 敬睦堂 揭板. “敬睦堂, 爲容齋六一軒茅齋三府君創也. 其創始在英祖庚申, 而至正祖丁亥, 不幸圯于火, 越三年己丑, 重建之, 今且二百有餘年. …중략…”

(1535~1594) 등 삼형제가 건립하였으나, 이후 화재로 인해 소실과 퇴락된 것을 삼형제의 학생을 선양하기 위해 후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중수를 거듭 하였다. 『敬睦堂重建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敬으로써 尊祖하고, 睦으로써 收族하는 것은 사람이 가문을 만드는데 이것에서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경에 근본 하여 미루어 목에 이르러야 한다. 대개 사람이 태어남이 조상에서 근원하지 않음이 없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결국 종족이 된다. …중략… 성주의 高灘里는 光山李氏 마을의 세가이다. 그 선조 容齋 휘 弘器, 六一軒 휘 弘量, 茅齋 휘 弘宇 등은 멩덕과 지행으로 한 때에 드러났다. 미수 허문정공이 銘에 이르기를, ‘우뚝하구나 삼용이여, 좋은 풍속을 일으켰고, 후세에 가르침을 내렸구나.’라고 하였다. 그들 백씨·중씨·계씨 등을 모두 용으로써 덕을 드러내었고, 이 이후로부터 마침내 ‘삼용’으로 그 가문을 칭하였다. 일찍이 한 집을 두고 편액하기를, ‘경목’이라고 하였다. …중략…³⁴⁾

重齋 金槐(1896~1978)이 1972년에 지은 重建記로써 누정을 매개로 하여 조상을 공경하고 문중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다. 조상을 공경하고 높이 받들며 일족들을 화목하게 살피서 거두는 것은 가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다. 그들은 이러한 위선 행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역대 여러 선조들 가운데 학행을 겸비했던 容齋·六一軒·茅齋 등 삼형제를 위하여 정자를 짓고 문중의 화목을 도모하였다. 육일헌과 모제는 洛江七賢의 구성원으로서 당시 유림의 추앙을 받았다. 용재는 한강의 매부이며, 이들 삼형제는 한강과 김우옹, 김면, 이기춘, 오건,

34) 金槐, 『敬睦堂重建記』, 敬睦堂 揭板. “敬以尊祖, 睦以收族, 人之爲家盡乎是矣. 然而求其爲道, 則必先本之敬而推之至於睦. 蓋人之有生, 莫不原於祖先, 而自祖先而下之, 乃爲宗族. …中略… 星州之高灘里, 光山李氏鄉之世家也. 其先有容齋諱弘器, 六一軒諱弘量, 茅齋諱弘宇, 并以名德至行, 著於一時, 眉搜許文正公, 銘有曰, 卓卓三容, 可以興善俗, 可以教百世. 以其伯仲季, 俱以容表德. 故合而稱之曰, 三容而自是之後, 遂以三容名其家焉. 嘗有一堂扁曰敬睦. …中略…”

최영경 등과 교류하였다. 특히 모제는 임란 때 仲氏 육일헌의 喪中임에도 불구하고 松庵과 창의하여 伊傳山에서 募兵官으로 활동하며 전공을 세웠다. 이들 삼형제의 인생편력을 볼 때, 형제들은 효와 충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우애가 돈독하였다. 미수 허목은 삼형제의 충효와 우애를 높이 평가하여 ‘三容’이라 하였고, 결국 향중에서는 이들 가문을 ‘삼용’이라 불렀다.

훗날 후손들이 삼형제의 숭고한 학덕을 선양하기 위하여 누정을 지어 선조를 공경하였고, 이를 통하여 문중의 화목을 도모하였다. 위선 행위에서 경목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목정을 건립한 후, 이곳에서 문중의 화목과 향촌 내에서 가문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문중회의, 결계, 문집 간행, 족보 간행³⁵⁾ 등 근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선 사업을 펼쳤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위선 사업을 통한 문중의 화합을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은 점차 건물의 규모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상당한 물력을 기반으로 하여 선조를 선양하기 위해 누정을 건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내에서 가문의 입지와 위력을 굳혀 나갔다.

영천의 동쪽에 ‘玉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진양 정씨의 전장이다. 정씨의 선조는 진양으로부터 고령에 옮겨온 사람들이다. 이미 십 몇 대에 걸쳐 황산 아래에 있는 月巖 마을에 살았는데, 月潭 鄭師賢 선생이 있었다. 그는 曹南冥 선생의 妹婿로서 문학과 행의로 유림에 존경을 받았다. 후대로 오면서 유학의 규범을 돈독히 지켰고, 대대로 지나면서 끊이지 않아 고을의 모범이 되었다. 근세에는 삼형제가 나란히 아름다운 자취가 있었으니, 모두 행의를 돈독히 하였던 사람들이다. 맏이는 通政大夫 基五, 다음은 基德, 막내는 基齋라고 한다. 세 사람은 애초부터 옥산의 전장에 함께 집을 짓고 살면서 효우를 몸소 실천하며 주경야독에 힘썼다. 풍모와 의리가 돈독하고 두터웠으며 椒聊이 날로 번성하여 가업이 점점 번창 하여 절로 한 가문을 이루었으니, 사람들이 ‘三公’이라 일컬었다. 마을을 선택한 지혜로움과 터를 건립한 두터움에 옥산의 이름이 멀리까지 들렸다. 삼

35) 李根永 刊編, 『光山李氏族譜』, 敬睦堂, 1924.

공들은 재물을 버리다시피 하여서 계를 만들어 재산을 널리 크게 만들었으니 몇 해만에 마을 곁의 높고 시원한 곳에 한 건물을 짓고, '三友堂'이라고 이름 하였다. 매일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노닐었기에 양씨 춘진이 함께 놀았던 행위와 같다고 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이곳에서 선조를 우모하고, 이곳에서 벗을 맞이하여 대접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자제들을 강학하기도 하였으니, 그 뜻을 미루어 넓혀 가문을 분발하고 후손들의 법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창업과 수통의 표상이 될 것이다. ...중략...³⁶⁾

현재 본관리[관동] 산기슭에 있는 三友堂의 記文이다. 관동은 晉陽 鄭氏家の 세거지인데, 月潭의 후손이었던 鄭基五·鄭基德·鄭基裔 등 삼형제가 거주했던 곳이다. 이들은 향내 유림에서 학덕으로 이름이 있었고, 삼 형제의 두터운 우애 때문에 이들을 '三公'이라 불렀다. 이들 삼형제는 주경야독하며 학문에 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結契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고, 결국 이곳에 삼우당을 건립하였다. 삼우당은 先祖의 崇慕, 接賓客, 문중 자제의 강학 등 세 가지의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삼우당을 건립하여 경영하면서 이들이 행했던 행위들은 대부분 爲先과 문중의 화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19세기에 이르면서 고령지역에는 각 문중별로 이런 기능을 가진 누정을 대거 건립하게 되었다. 비단 이런 누정 건립의 시대적 흐름은 고령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남지방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누정건립의 한 문화 패턴이었다.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한 누정에서도 건립 초기의 공간 기능이 시대의 흐

36) 權龍鉉, 『三友堂重修記』, 三友堂 揭板. “靈川之東, 有里曰玉山, 晉陽鄭氏之庄也. 鄭氏之先, 自晉遷于靈者, 已十數世, 世居黃山下月磯村, 有月潭先生諱師賢, 以南冥曹先生妹婚, 文學行義, 負望儒苑. 自後子姓, 篤守儒範, 歷世不替, 爲鄉之望. 近世有三棟聯芳, 并敦行義者, 長曰通政大夫基五, 次曰基德, 季曰基裔. 三公始胥宇於玉山之庄, 躬行孝友, 力於耕讀, 風義篤厚, 而椒聊益繁, 家業漸昌, 自成一門欄, 則人稱三公. 擇里之知, 築基之厚, 而玉山之名, 聞於遠邇矣. 三公, 嘗捐貲立契殖, 而大之者, 數歲築一屋於里旁, 爽塏處名曰, 三憂堂. 日聯床湛樂, 如楊氏椿津之爲, 而又因以寓慕先於斯, 延賓友於斯, 課子弟於斯, 則蓋推廣其義, 足以爲門戶之責, 來裔之則, 而居然有創業垂統之象矣. ...中略...”

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건립 초기에는 강학의 목적으로 건립하였지만 중수, 이진, 퇴락의 전철에서 기능도 변화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걸으로 보기에 단순한 재실 정도의 누정도 건립 초기에는 강학이나 장수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이 상당수에 이른다. 결국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오늘날에 이르러 상당히 퇴색되어 건립 초기의 문화 원형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4. 맺음말

이 논문은 지금까지 고령지역에 건립되었던 각양의 누정을 문학적으로 해석하여 누정의 분포와 시대적 추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누정의 공간적 기능을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고령 문화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삼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지역에는 이미 신라시대 때 碧松亭·孤雲亭과 같은 유서 깊은 누정이 건립되었다. 16세기에 이르면서 누정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건립 분위기는 근래에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고령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누정의 건립에 있어서 주변 환경에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 첫째, 고령지역은 가야산에서 흘러내리는 龍潭川을 배경으로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몇몇 누정이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지역의 누정 건립은 몇몇 승경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령 전역에 누정이 고루 분포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갖춘 누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누정의 건립자나 경영자가 환로에 나아갔다가 물러나 퇴휴한 문인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16세기 이전, 신라시대 때 이미 고령지역에는 몇몇 누정이 건립되었다. 벽송정 건립 이후, 고령지역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현존하는 누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헌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6세기 초에 이르러 일정한 경제적 여력과 학문적 교양을 갖춘 토착 재지사족들이 차츰 등장하면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환로에 나아가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로 은거하며 학문에 몰닉한 사족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의 누정 건립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 시기에 건립된 누정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月潭 鄭師賢의 月潭亭, 桃津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던 고령 박씨가에서 건립·경영한 竹淵 朴潤의 竹淵亭, 鶴巖 朴廷潘의 鶴巖亭 등이다.

17세기와 18세기는 고려로 입향했던 기존의 토착 사족들이 점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문중을 형성하여 집성촌을 이루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茶山面의 全義 이씨가, 桃津里와 平地里의 고령 박씨가, 고령 현감 李衡仲, 雲水面의 星州 李氏家 등에서 後學養成, 先祖宣揚 등의 목적으로 누정을 건립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李衡仲이 고령 현감으로 재직할 때, 1745년에 松泉坊·九谷坊·津村坊에 거주하는 民力の 扶助로 開津[開津浦]에 건립한 濟三亭과 開湖亭 등이다. 당시 이곳은 영남의 가장 번성한 무역포구로서 많은 漕倉이 있었고, 여기서 關稅와 民政을 살피기 위해 두 누정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19·20세기에 이르면서 고령지역 전역에는 본격적으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선조의 학행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된 누정이 대부분인데, 이는 본격적인 문중의 형성과 성씨의 집성촌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령지역은 이미 조선시대에 고령을 본관으로 하는 신·박·이·유·백·김·정 등의 7개 土姓이 있었다. 아울러 형성된 집성촌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8개 성씨가 入鄕하여 나름대로 각자의 문중을 형성하며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 나갔다. 이들은 문중의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향촌 사회에서 그들이 행했던 위선 사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누정의 건립은 위선 행위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기에 문중을 중심으로 많은 재원과 인력을 출연하였고, 심지어 향내에 있는 타 문중과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따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누정을 건립하게 되었다. 건립된 누정을 통하여 향촌 내에서 문중의 입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신분상승까지 꾀하거나 향촌 내에서 여론 조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누정은 문중이나 인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고령이 지역적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령’을 貫鄕으로 하는 土姓이 많고, 이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면서 많은 경제적 부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가진 누정을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누정은 일상생활의 주생활 공간이기보다는 별채 형태의 부가된 공간이다. 그래서 어떤 누정이건 간에 건립 초기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령지역에 산재해 있는 누정의 공간적 기능을 유형화해보면, 먼저 遊息과 藏修의 기능이 있다. 고령지역의 누정 가운데 16세기에 건립된 누정은 개인이 직접 건립하여 경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립자나 경영자가 환로에 나아갔다가 낙향했던 官人이었다기보다 대부분 학문적 역량과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재지사족으로서, 이미 향촌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한 지식층이었다. 그들은 향촌 사회의 재지사족으로서 퇴계나 남명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거나, 그 사숙문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환경이 비슷한 주위 문인들과 교유하며 학문적 담론을 나누기도 하고 일정한 향촌사회의 신분질서 속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족들은 탄탄한 배경을 바탕으로 누정을 건립하여 유식과 장수의 한 공간으로 경영하였으며, 이곳에 많은 소인목객들이 출입하였는데, 낙동강 가에 있는 도진에서 집성촌

을 이루고 살던 고령 박씨가에서 건립한 누정이 대표적이다. 둘째, 강학과 수학의 기능이다. 조선시대에 향촌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향촌사회에서는 누정을 건립하여 사학의 강학소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관직에 있다가 致仕한 후에 낙향하여 누정을 지으면 원근에서 문도들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향촌의 재지사족으로서 은거하면서 문중의 자제들을 강학하기 위해 누정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령지역에 있는 누정 가운데서도 이런 공간적 기능을 가진 누정이 있다. 그러나 고령지역에는 환로에서 낙향한 문인들이 건립한 누정보다 사족들이나 문중에서 문중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건립한 누정이 대부분으로 특히 경운재를 주목할 만하다. 경운재는 청천 신유한(1681~1752)이 환로에서 물러나 강학과 퇴휴를 목적으로 건립한 누정이다. 19세기에 이르면서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누정이 차츰 건립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건립된 누정은 대부분 강학의 대상이 문중의 자제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산면의 경주 김씨가에서 건립한 知知齋가 그 한 선례이다. 셋째, 화목과 선양의 기능이다. 선조를 선양하기 위한 방법은 족보나 문집의 간행, 입석 사업, 누정 건립 등으로 이 가운데 누정의 건립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전통 시대의 누정 건립은 지금의 발달된 건축 공법으로 건립하는 것보다 재원적인 면에 있어서 물력과 노력의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계하여 문중의 자발적인 출자를 통하여 누정을 건립하였고, 문중의 위세를 대외에 공고히 함으로써 향촌사회에서 자신의 문중이 여론을 주도하는데 한 방편으로 삼았다. 고령지역에 있는 누정 가운데 문중의 화목과 선조의 선양을 목적으로 건립된 초기의 누정은 성산면에 있는 광산 이씨가에서 건립한 경목당이 있다. 경목당은 1740년에 용재 이흥기·육일헌 이흥량·모재 이흥우 등 삼형제가 건립하였으나, 이후 화재로 인해 소실과 퇴락된 것을 삼형제의 학생을 선양하기 위해 후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중수를 거듭하였다.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한 누정에서도 건립 초기의 공간 기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건립 초기에는 강학의 목적으로 건립하였지만 중수, 이진, 퇴락의 전철에서 기능도 변화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재실 정도의 누정도 건립 초기에는 강학이나 장수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누정이 상당수에 이른다. 결국 누정의 공간적 기능은 오늘날에 이르러 상당히 퇴색되어 건립 초기의 문화 원형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원전자료

- 『文體明辨』, 影印本.
『院祠樓亭誌』, 影印本.
『邑誌』, 影印本.
『朝鮮寶輿勝覽』, 影印本.
『南冥集』, 影印本.
『嶧陽先生文集』, 影印本.
『家傳規範』, 高靈朴氏門中 所藏本.
『靑泉先生文集』, 影印本.
『癡齋文集』, 影印本.

2. 단행본 및 논문

- 金戊祚·鄭景柱·孫貞姬, 『朝鮮朝 樓亭文學研究』, 『韓國文學論叢』 제10집, 韓國文學會, 1989.
金信中, 『全北의 樓亭連作題詠에 대하여』, 『湖南文化研究』 제25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97.
김신중, 『전남의 樓亭題詠 연구』, 『湖南文化研究』 제24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96.
金貞仁, 『朝鮮中期 士林의 記文研究』, 國學자료원, 2003.
박준규, 『한국의 누정고』,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朴煥圭, 『조선 전기 全北의 樓亭題詠攷』, 『湖南文化研究』 제25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97.
박준규, 『조선조 전기 전남의 樓亭詩壇 연구』, 『湖南文化研究』 제24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96.
朴煥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 제17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7.
吳龍源, 『安東地方 樓亭文學 研究』, 『語文學』 83집, 韓國語文學會, 2004.
吳龍源, 『嶺南地方 樓亭文學 研究(1)－慶州, 淸道, 永川, 安東 지역 소재 누정을 중심

- 으로」, 『大東漢文學』 22輯, 大東漢文學會, 2005.
- 윤채근, 「조선전기 누정기의 사적 개관과 16세기 변모양상」, 어문논집 35, 고대국어 국문학회, 1996.
- 李相寔, 「全北地方 樓亭의 歷史的 意味」, 『湖南文化研究』 제25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97.
- 李根永 刊編, 『光山李氏族譜』, 敬睦堂, 1924.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7.
- 정청주, 「朝鮮後期 全南地域 士族의 樓亭建立」, 『湖南文化研究』 제24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96.
- 최재울, 「全南地方 樓亭의 性格과 機能」, 『湖南文化研究』 제24집,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96.
- 허경진, 『대전지역 누정문학연구』, 대학사,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Interpretation and Spacial Function of Koryung Nujeong(樓亭)

Oh, Yo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addition to literal interpretation of all sorts of Nujeong established in Koryung province till now, look into the distribution of Nujeong and the shift of the times and, analyze its spacial function with its materializ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s found that in Koryung province, several historic Nujeongs such Byuksongjeong(碧松亭) and Gounjeong(孤雲亭) were founded in the Silla era already. However, it seems that coming to 16C, its full-scale foundation was began, this foundation atmosphere was steadily continued until comparatively lately.

Any Nujeong founded from Goryeo to early Joseon dynasty period has not been found in Koryung province, besides any record on it in literature materials has not been found. Coming to 16C, with the appearance of an native-born classical scholars with economic wealth to spare and scientific culture, Nujeongs were began to established.

17C and 18C were the times when the existing native-born scholars, who had come to their home country of Koryung, began to form a rural community little by little with the formation of their family(clan) of a fixed scale. In these eras, Nujeongs were established with the intention of <younger scholar education>, <ancestor enhancement> and <civil administration management>, etc. Coming to 19C & 20C, throughout the Koryung province Nujeong was began to establish in earnest. In those days most Nujeongs were built to enhance the scholarship and virtue of ancestor, then though the establishment of Nujeong and by strengthening the location of their family within the country village(community), they seek the rising of status or played a decisive

role in public opinion formation within the community.

Nujeong is an additional space of annex form, rather than a main living space of daily life. So every Nujeong has various spacial functions, because it was established for a special purpose from the first stage of its establishment. From the analysis of spacial function of the Nujeong in Koryung province, it's found that they have the functions of <living in easy retirement> and <pursuing studies>.

Its establisher or manager pursued studies under Toigyeo or Nammyeong's instruction as their pupils, and most of them were private school literary men. They interchanged letters with neighboring literary men around in similar environment, tried academic discussion with them,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forming a public opinion while maintaining the superiority within a fixed status order of country village community.

Second, it played the function as a space for pursuing studies and receiving education because in Joseon dynasty period there was no many places which would take charge of an education in country village.

Therefore, in the country village Nujeong took charge of the function as a study room under the private education system. For example, if a person in the government service give up his official post and retire into country and then establish Nujeong, many disciples would gather around for the pursuit of learning from him, sometimes they would establish Nujeong for the purpose of giving a place for instructing the sons of their close relatives while living in retirement as native-born scholars of a country village. Coming up to 19C, Nujeong aiming at a place for pursuing studies had began to establish gradually, most Nujeongs established in those period were permitted to the sons of their close relatives as the objects of instruction only.

In the spacial function of Nujeong, the purpose of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Nujeong was sometimes changed according to the current of the times. For instance, a Nujeong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ursuing studies there in early years of establishment was changed in its functions with the processes of repairing, moving and decline. Therefore, there are a lot of instances in which Nujeong, which seems to be simply Jaesil at a glance,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giving a place for pursuing studies or receiving an education in the early days of establishment.

Finally, the spacial function of Nujeong was fairly changed today, so it's not easy to understand its cultural original form of the early days. the understanding of that would be possible only through analysis of various materials.

Key Word

Nujeongki(樓亭), Native-born scholar(在地士族), Historic relics(建造物), Letter writings(記文), Sangryangmun(上樑文), Jeyoungsi(題詠詩), Living in retirement(遊息), Academic training(藏修), Pursuit of study(講學), Receiving an education(修學), Harmony(和睦), Enhancement(宣揚)

- 논문투고일 : 2009.5.30. 심사시작일 : 2009.6.2. 심사완료일 : 2009.6.12.